

기독교의 죽음 이해와 자살예방

조 성 돈*

목 차

- | | |
|--------------------|------------------------|
| I. 우리 사회를 뒤흔든 세 죽음 | III. 기독교가 이해하는 죽음 |
| II. 한국인의 죽음 이해 | IV. 결론: 죽음의 격리와 정신적 혼돈 |

국문초록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각 종교는 상이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각 종교는 그 동안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심지어 지옥과도 연결해 왔다. 그런데 각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의 구원을 다르게 설명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종교적 입장, 특히 기독교의 입장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친화적이었다. 한국인들은 죽음을 가까이 두면서 친해지려고 했고,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죽은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족으로 함께 했다. 그래서 이들은 기억과 재현을 통해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죄의 결과로 보았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다. 그들은 스올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그곳도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이다. 신약에서는 죽음 이후를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평안을 말하며, 사랑과 평화의 자리이다. 또한 산 자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히브리 전통에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죽음도 이러한 존재의 끝이다. 그러나 이후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LifeHope

논문접수일 : 2020. 4. 30., 논문심사일 : 2020. 5. 11., 게재확정일 : 2020. 6. 10.

죽음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적인 죽음이 있지만 이후 육체적 부활을 포함하는 온전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의 부활은 이처럼 죽음 이후 잠자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이다. 이로써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간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소외되어 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죽음과 죽음 이후도 소외되어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 상업화되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인간들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들은 혼란과 불안을 겪으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 세워가는 것은 정신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고, 자살 예방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죽음, 기독교, 자살예방, 죽음 이후, 성경

I. 우리 사회를 뒤흔든 세 죽음

2009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원로였던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신 후 이 사회에서는 추모열기가 일어났다. 일찍이 돌아가실 일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의 죽음을 사회적 사건으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감동 어린 이야기들이 방송을 통하여 전하여졌다. 그가 돌아가신 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천주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성당을 찾아서 참배하였다. 그 참배대열에는 사회의 유명인사들도 참여되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의 원로이고 어른이셨던 분에 대한 존경이나 추념의 마음으로 참배한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한국사회에 추모의 문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고 김수환 추기경은 넓은 의미에서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공적인 생명연장 수단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그의 당부는 그대로 지켜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회적 분위기는 그가 종교인으로서 죽음 앞에서 의연히 가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는 현대의학이 만들어 놓은 치료나 장치들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을 존엄사라고 하고 정말 넓은 의미에서는 자살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러한 볼

경한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에게 죽음의 선택조차도 종교적 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그 거룩한 선택에 가족이나 의료진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인 것이다. 죽음 앞에서 그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또 다른 죽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다. 직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회는 정치적 타살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주기도 했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애써 그의 죽음을 자살로부터 분리하려는 적지 않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가 죽은 이후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대표하여 김인국 신부는 봉하마을에서 추모 미사를 올리고 그의 죽음은 비록 자살로 계명을 어긴 것이지만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지가 열려있다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전국 모든 주요 사찰에서 추모의식을 거행하였고 특히 49재를 전 사찰에서 드렸다. 불교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리상 그렇게 너그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할 일이 없다는 입장에서부터 그의 죽음에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자살을 통한 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죽음을 보는 종교계에서도 종교적 가르침이나 신념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에 신학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죽음은 이렇게 자살에서 추모되어야 할 거룩한 정치적 행위로 승화된 것이다.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김할머니의 가족들은 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법정 투쟁을 벌였다. 비록 죽음 앞에 있지만 산소마스크를 뗄 수 없다는 병원 측을 상대로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가족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6월 23일 병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할머니는 산소호흡기가 없이도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김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201일간 생존하여, 해를 넘긴 2010년 1월 10일 최종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그 죽음을 진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된다. 가족조차도 포기했던 그 삶이 예상을 뒤엎고 꽤 오랜 시간 생존한 것이다.

이 세 죽음을 통해서 이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부에서는 그 죽음이 선택되고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위적인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겼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유명인사의 죽음에서 이 사회와 종교는 그 일이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며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그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존엄사였던, 적극적인 의미의 자살이었던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쉽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 존엄사를 위해서 법정투쟁까지 벌여야했던 김할머니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부정적 취급을 받았을 일인데 특별한 사람들의 죽음이었고, 특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때로 아름답게, 또 때로는 의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정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이 사회에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존엄사이던 자살이던 간에 신의 권한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한 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세대가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연결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인의 죽음 이해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야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것이 비록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기에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것을 김열규는 ‘죽음에 대한 백치’¹⁾라고 명하고 있다. 죽음이 두렵기에 죽음에 대해서 바보인척, 모른 척 하는 것이다. 그 위장된 백치를 통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트리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그 무엇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보다도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죽음의 초월을 시도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 궁극적

1)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서울: 궁리 2001) 47.

두려움을 구원으로 극복하도록 하기도 하고, 자신을 넘어선 그 무엇으로 승화시키기도 한다. 바로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극복의 방법론은 단지 종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 바로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죽음을 멀리 두지 않으면서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즉 죽음을 어느 날 다가올 두려운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매일 만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인들이 자신의 묘 자리를 마련해 두고 곁을 미리 파두는 경우이다. 그리고 스스로 수의를 마련하여 두고 장수를 꿈꾸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예비하는 관례가 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미리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길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생과 사의 화해를 시도한다. 이러한 화해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낫설지 않게 하고, 그 죽음에 길들게 되는 것이다.²⁾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은 죽음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죽음을 삶으로 경험한다. 이를 김열규는 삶의 끝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보이지 않게 간직되어 있던 죽음이 어느 날 문득 다 갖추어진 모습으로 삶 전체를 뒤집어 보는 것뿐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국인의 죽음에서 또 특이한 사실은 죽은 이들이 산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구성원으로 집안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조 말기를 거쳐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도 확연하게 가족구성원 속에 편입되어 있다. 죽은 이는 이런 의미에서 떠나버린 가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족으로서 한 집안에 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산 사람 사이에서의 교통보다도 더 긴밀하게 산 자와 죽은 자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집안에 있었던 사당에 드리는 평소의 제례를 볼 수 있다. 조상을 모셔둔 사당에 사람들은 매일 새벽 향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도 절을 할 것이고, 나가서 자고 올 때면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또 열흘이나 걸릴 만큼 멀리 외출하게 될 때는 두 번 절하고 향을 피운 후, 무릎을 꿇고 앉아 고사를 읽고, 또 두 번 절하고 간다. 역시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³⁾ 이와같이 밖을 출입할 때 우리 조상들은 사당에 그 예를 극진히 드렸음을

2) 김열규, 같은 책, 66.

3) 이민수, 『관혼상제』(서울: 을유문화사 1975) 140-141.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설과 동지,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정해 놓고 사당에 참배한 일과 명절에 시식을 올렸던 일,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아가 아 되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죽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안방을 지키고 있는 부모에게 하듯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록 돌아가신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가족으로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⁴⁾

필자의 경험에서도 특별했던 것은 한국인들은 죽은 이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자녀들이나 남은 배우자들이 영정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 물론 이것이 영혼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죽은 이를 산 자처럼 여기며 나누는 대화이다. 어떤 자리를 보면 유족들이 문상하러 온 사람들을 하나씩 죽은 이에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보면 마치 그 대상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오랜 외국의 경험을 가지고 볼 때 결코 이러한 일은 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외국의 경우는 죽은 이들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생에 없는 어떤 장소로 떠나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영화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장례식이란 환송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제례를 통해서 계속 죽은 이들과의 관계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 년에도 몇 번씩 치러지는 제사나 차례를 보면 한국인들은 조상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들의 조상제례가 특별한 것은 그 조상이 신(神)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가족들 가운데 존재하며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그 죽은 자들이 신사(神社)에 모셔지며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죽은 이들은 그 후손들의 인사를 받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존재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떠난 이들이 아니라 산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죽음관은 유교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유교와 기독교에서의 죽음 이해와 정치, 경제적 효과’⁵⁾라는 논문에서 최우영은 유교의 죽음이해는 기독교의 죽음 이해와 대립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기독교에서 죽음이 구원과 천년왕국에 의해 보상되고 또 신의 의지에 의해 그것이 담보된다면, 유교에서 죽음은 (역사적) 기억과 재현을 통해 보상되고 후대(자손)의 실천에 의해 그것이 담보된다.’⁶⁾ 그의 이야기는 기독교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인

4) 김열균, 같은 책, 18.

5) 최우영, 「유교와 기독교에서의 죽음 이해와 정치, 경제적 효과」, 『일상과초월』 발표문. 2007.03.29. 1-9.

간의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의 전지전능성과 실패할 수 없는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즉 철저히 인간을 뛰어 넘는 신의 의지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경우는 그러한 절대자가 없다. 단지 인격성이 배제된 원리이자 만물의 주재자로서 이(理)가 존재한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이(理)에 부합하는 합리(合理)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합리를 행하는 것을 오륜(五倫)이라고 하고 그 중에 제일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한다. 그러나 이 효는 단순히 살아생전의 부모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까지도 아우르는 것이다. 특히 사후에 이루어지는 효가 가장 으뜸가는 합리적 실천이라고 여겨졌다.⁷⁾

유교에 있어서 이 효는 단순한 세속 규범이 아니라 엄숙한 종교적 명령이라고 최우영은 말하고 있다. 사후의 효의 본질은 부모를 포함한 선대를 ‘기억(remember)’하고 일정한 형식을 통해 그를 ‘재현(represent)’하는데 있다. 유교 특유의 조상숭배(ancestor worship)와 관련 의식(ritual)을 통해서 후손들은 조상들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기억과 재현을 통해서 조상들은 존재의 영원성을 얻게 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손들의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그 가족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神)이 없는 유교의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며 죽음을 대하는 방법인 것이다.

바로 이 기억과 재현 때문에 유교적 인간은 삶을 진지하게 대하게 된다. 자신의 삶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 의해서 대대손손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에서 자살이 용납되지 않는다. 자신이 기억될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죄스러운 모습으로 남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죄스러운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도 쉽지 않다.

또 한국인의 죽음에 특별한 점은 죽음의 압력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죄업을 지니고 산다. 이것이 바로 3년 상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학을 하며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업을 씻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자식들에게는 인륜으로 비쳐졌고, 정으로 비쳐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강박관념화한 죄업의식을 지고 사는 것이다. 죽음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사람에게 태산 같은 압력으로 다가오게 되며 그 죽음에 눌러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6) 같은 논문, 2.

7) 같은 논문, 3.

8) 같은 논문, 4.

이러한 죄의식을 우리도 경험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 장면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과는 별 연고도 없으면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죄업의식이 강박관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죽음관은 죽음과 멀지 않은 곳에 머무르며 죽음을 피하지 않고 화해하려는 시도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이들이 현재의 가족들을 떠나지 않으며 손들의 기억과 제례 가운데 함께 하고, 그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족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죄업의식을 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III. 기독교가 이해하는 죽음

1. 한국교회가 죽음과 자살,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논해야하는 이유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명쾌한 것 같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검투사의 칼에서, 사자의 입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믿음이나 믿음의 지식이 없어진 것 같다.

2008년 필자는 자살에 관한 책⁹⁾(조성돈, 정재영: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을 출간했었다. 당시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여파가 엉뚱하게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의 명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커졌다. 필자의 주장은 자살한 사람이 지옥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것 역시 인간의 판단 영역을 넘는다는 것이다. 즉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지옥 가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용서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단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라고 본다.

종교개혁가들이나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신학자나 윤리학자들은 자살한 사람

9) 조성돈, 정재영,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상제』(서울: 예영 2008)

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자살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은 지옥에 간다고 대답을 한다. 이러한 통속적인 속설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것이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정해진 교리인 줄 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¹⁰⁾

이러한 주장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보인 반응은 필자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서는 수 없는 댓글이 붙으면서 자살에 대한 논쟁에서, 구원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논쟁을 보면 성서적이거나 신학적인 면보다는 그냥 교회나 주변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싸움의 형태로 이어졌다. 즉 정확한 사실이나 진리의 문제보다는 선불리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들어온 상식에 기댄 판단이다. 그러한 논의를 보면서 필자는 한국교회가 죽음이나, 자살,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 왔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또 이러한 논쟁이 11년 전에도 불거졌다.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다. 자살로 죽은 그 분이 구원을 받았을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는 그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보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영향인지 개신교에서도 그가 구원을 받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그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까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를 만났던 목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는 것조차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도 있었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오히려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신학적 노력을 하는 측도 있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하게 그의 죽음을 이해하려 했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개신교에서 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다. 선불리 인간이 그 기준을 가지고 죽은 이의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주제를 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신앙이나 신학에 기댄 판단보다는 이념이나 사회적 환경에

10) 같은 책, 90.

기댄 판단을 하고 그것을 신학화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구원에 대한 우리 생각의 미천함을 드러낸 일이었다고 본다.

2.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죽은 시체에 대해서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는 죽음을 흉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죽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찬양에서 제외된 자로 살아 있는 자들과 대조하고 있다. “스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사 38:18-20) 즉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울에서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곳이다. 그곳은 산 자들의 세계와 그렇게 구별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여호와와 일과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자다. 생명이란 구약성서에서 바로 ‘관계를 맺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이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스울이라는 죽은 자들의 세계조차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시 139:8) 그러므로 스울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잠정적으로 끊어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¹²⁾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다. “주는 나를 스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욥 14:13) 즉 죽음의 세계인 스울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으며, 그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곳에 감추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그곳에서 주님의 진노가 비껴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 죽음의 장소가 이제 공허의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가 된다.

11) Hans Walter Wol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München 1973.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서울: 분도출판사 1976), 191.

12) 김이곤,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28.

구약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의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일정 기간을 생명으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서 죽음은 즉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공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¹³⁾

민영진은 ‘삶과 죽음과 생명’이라는 한국기독교윤리학회에서 행한 강연록에서 신약성경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를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제시한 본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골로새서의 말씀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인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3-4)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살아 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후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다른 본문은 누가복음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눅 20:34-40)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그리고 민영진의 탁월한 통찰력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산 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보는 민

13) 같은 책. 35.

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조차도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생의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의 구분일 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명을 가지고 있음이 살아 있는 자인 것과 같이 죽었을 지라도 그것은 공허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가 된다.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분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기까지 우리 믿음의 순례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 생과 사를, 선함과 악함을, 구원과 패망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죽음을 우리의 임의로 처리하고 죄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3. 죽음에 대한 두 전통: 히브리 전통과 그리스 전통

히브리인은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나누어보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보았지 그것을 어느 한 부분 내지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육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 전통에서 나타나는 영에 대한 우월성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육을 가졌다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육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처럼 영도, 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책임져야 할 개인인 동시에, 철저히 공동체에 속한 집단적, 사회적 인격’¹⁴⁾으로 이해를 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죽음으로 연결된다.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간을 의미하지, 육의 죽음이나 영의 죽음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즉 인간의 부분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은 죽어 썩어지나 영은 살아서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죽음은 저주이고 악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생의 끝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14) 김균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8.

끝에서 부활을 이끌어 낸다. 죽음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 죽음은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 인간의 한계에서 더욱 빛난다. 그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에게 임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창조’로서 부활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철저하게 총체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포함한다. 그것은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부활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생물들의 부활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육의 부활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새 창조를 암시한다¹⁵⁾

이러한 전통 속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사도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굳이 ‘몸’의 부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며 영혼의 우월성을 벗어나고, 육으로 표현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긍정한다. 영혼만이 가치 있다고 하며 이 땅에서 삶을 방탕과 허무로 보내는 이들의 전통을 벗어나고 이 땅의 삶을 모두 가진 온 존재로서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이런 사상의 맥락에서 우리가 있지만 실은 내내 그리스의 이원론 전통에 매여 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교회의 현실적 태도는 ‘영혼 불멸설’이었다. 즉 육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는 이 생각은 그리스의 이원론에 터해 있다. 그 생각은 육은 물질에 속하며, 영혼은 신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육은 악한 것으로 규정되고 영혼은 고귀한 것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육은 영혼의 활동을 방해하며, 영혼을 감금하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됐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치는 영혼이 육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 낸 것은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벗는 축제이다. 죽음은 육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아서 영원히 산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이것은 성서에서 가르치는 죽음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김군진은 그의 책에서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들 가운데 하나’¹⁶⁾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

15) 같은 책. 159.

16) 같은 책. 286.

간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속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속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날로기아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권세에 속하는 죽음에 대한 왜곡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죽음조차 인간 안에 있는, 또는 인간의 한 부분인 ‘영혼’을 통해 극복하고 연속성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인 죽음을 강조했던 성서의 전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정설은 죽음 이후 인간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들은 그 잠자는 상태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기다린다. 구약성서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스올, 곧 죽음의 세계 역시 이 잠자는 자들의 장소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해는 신약에서도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회당장 아이로의 딸 사건이다. 모두가 그 딸이 죽었다고 하고, 집은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잔다고 한다. 그리고 ‘달리다꿈’,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며 그녀를 살리신다. 또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잠 들었다고 표현하신다. 바울은 예수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15:20)라고 표현한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 이후 잠자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살아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en Christoi)에서 코이노니아, 즉 연합 가운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죽음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안식 가운데, 그의 사랑과 평화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심판의 개념은 사라진다. 삶의 영속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짐들도 모두 사라진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코이노니아는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은 코이노니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 ‘산 자’이다.(눅20:38)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산 자’로 연합한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표현하여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 ‘코이노니아 하기온’(koinonia hagion), ‘거룩한 자들의 연합’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교회를 의미한다. 성도들의 공동체,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교회

17) 같은 책. 357.

이다. 그런데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코이노니아가 살아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그리스도 안(en Christoi)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 풍성해진다. 이 풍성한 교회의 개념 가운데 우리는 죽은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누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연합하며, 사랑하게 된다. 또 이 가운데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연합(koinonia)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이다.

IV. 결론: 죽음의 격리와 정신적 혼동

이 시대에 죽음은 피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었다. 한국적 전통이나 기독교적 전통에서 죽음은 그렇게 거리끼는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은 없어진 것 같다. 최근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이라는 책을 낸 곽혜원은 그 원인을 현대인의 가치관에서 찾고 있다. 그는 ‘더 많은 능률과 생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더 많은 소유와 소비, 더 많은 오락의 향유는 현대인들의 최고 가치관이자 삶의 목표를 형성한다. 능력과 발전 일변도의 현대 사회에서는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만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제거되어야 하는데, 특히 질병과 죽음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요소다.’¹⁸⁾라고 밝히고 있다. 즉 성장과 능률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그 반대되는 느낌의 죽음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국 죽음을 이 사회와 격리시켰다. 먼저 과학기술의 발달은 죽음을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왔다. 병원에서 보호자들은 환자의 죽음을 종종 선택해야 한다. 의사가 정해주는 죽음의 몇 가지 선택에서, 경제적 여건과 가족의 관계,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 가운데 죽음의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죽음의 당사자는 종종 소외된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곽혜원은 이를 두고 죽음을 주체적으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표현한다.¹⁹⁾

죽음 이후도 소외되고 있다. 장례의 절차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돈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 장례는 가족과 마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례식

18) 곽혜원,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기독교 생사학의 의미와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2.

19) 같은 책. 25.

장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상조회가 개입이 되어 장례의 절차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었다. 물론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족들이 편해진 면은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를 기억하고 추모해야할 기회는 잃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격리되었다. 죽음의 과정도 죽음의 기억도, 그리고 재현까지도 우리와 격리되어지며 죽음은 우리 가운데 소외 되어졌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죽음을 잃었다. 죽음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는 많은 부분 소외시키고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잃은 것은 종교를 잃어버린 것이다. 종교는 죽음을, 또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보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죽음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대면할 때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는 것인데, 아예 죽음을 외면하면서 이러한 질문조차도 잃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종교는 부드러워졌다. 이제 종교는 위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질문이 사라지고 난 다음, 종교는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는 부드러운 면만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종교는 그 궁극성과 절대성을 상실했다. 죽음을 외면하는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현실마저 상대화되고 희화화되는 현실에서 종교는 그 궁극성과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의미와 현실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삶의 기준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종교가 담보해 주었던 절대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삶에서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다. 매 순간 선택이라는 존재의 위기 앞에 서야 하는 현대인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다. 절대적 기준이 없을 때, 삶의 혼란 가운데 평계할 수 있는 궁극적 진리가 사라질 때 사람은 매 순간 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행동의 위기 가운데 서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혼동을 불러온다. 그것은 불안이고 분열이다. 파멸과 몰락이다.

뒤르케임은 자살론²⁰⁾에서 아노미를 이야기한다.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그 혼동을 그는 아노미라고 표현한다. 그는 종교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던 100여 년 전 그 시기에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노미의 상

20) Emile Durkheim, Le Suicide, 김충선역, 『자살론. 사회학적 이해』 (서울: 청아출판사 1994).

태에서 사회적 통제가 그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그는 욕망을 자제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학교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대는 사회도 종교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친숙한 친구로 이들을 내려 앉히고, 이제는 자신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성찰하고 기억하는 추모문화의 회복은 현 시대에 꼭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외면, 격리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상실로 이어지고, 그것은 삶과 행동의 기준 상실로,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소외와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어려워지고 자살이 증가하게 된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신을 내어버린 자립한 현대인들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숙된 인간으로서 자유를 구가했던 인간들이 그 자유의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시 죽음 앞에 진지하게 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죽음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의 문화를 이겨나가는데 큰 진일보도 가져오리라 믿는다.

합 정책 수립과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 곽혜원,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기독교 생사학의 의미와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김균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 궁리 2001).
- 김이곤,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 박인조, 『성경에서 찾은 아름다운 마무리』 (과주: 지혜의샘 2019).
- 손봉호 편,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의 기독교적 추모예식 연구』 (서울: 기독교세계관동역회 2011) 미출간 자료.
- 이민수, 『관혼상제』 (서울: 을유문화사 1975).
- 조성돈, 정재영,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상제』 (서울: 예영 2008).
- 조성돈,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기독교회의 대응방안. 30, 40대 남성의 자살을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31호(2012), 343-362.
- _____,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그 현실」, 『신학과실천』 16호(2008), 11-33.

최우영, 「유교와 기독교에서의 죽음 이해와 정치, 경제적 효과」, 『일상과초월』 발
표문. 2007.03.29.

황명환, 『죽음인문학』 (서울: 두란노서원 2019).

Emile Durkheim, *Le Suicide*, 김충선 역, 『자살론. 사회학적 이해』 (서울: 청아출판
사 1994).

Hans Walter Wol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München 1973. 문희
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 (서울: 분도출판사 1976).

John Bowker, *The Meaning of Death*, 박규태/유기쁨 역, 『세계종교로 보는 죽음
의 의미』 (과주: 청년사 2005).

Loren L. Townswend, *Suicide Pastoral Responce*, 박선규 역, 『자살. 자살에 대한 목회
적 대응』 (서울: 순전한 나드 2009).

Rob Moll, *The Art of Dying*, 이지혜 역, 『죽음을 배우다』 (서울: IVP 2014).

Shelly Kagan, *Death*, 박세연 역,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엘도라도
2012).

Abstract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and the Suicideprevention

Seong Don Cho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Even in religions that have the most worries about death, there is no exact concept of post-death. Roh Moo-hyun, former president, 2009 each religion was in a different position when he died in suicide. In particular, each religion has taken a negative stance on suicide and even connected it to hell. Each religion, however, explained his salva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his political position, not his doctri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religious position on death, especially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friendly to death. Koreans tried to make friends by keeping close to death and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tradition, joined them as invisible families, not leaving the dead. Therefore, they are regarded as a family through memory and reproduction.

The Bible is negative about death. I saw it as a result of sin. The dead cannot praise God, and they are cut off from th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osition of death called Seorl. Nevertheless, it is also the place of God's rule. In the New Testament, it was seen as concealing after death in God. It is a place of peace, a place of love and peace. There is also the thought of the living. In the presence of God, all men are not dead, but alive. So God is said to be the God of the living.

In Hebrew tradition, humans are not divided into spirits, souls, and flesh, but are holistic beings. Therefore, death is the end of this existence. However, a resurrection awaits afterwards. Death reveals human limitations, but God's power appears here. So there is a whole death, but a complete resurrection awaits, including a subsequent physical resurrecti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he first fruit that shows the resurrection of humans who have been sleeping since their death. This makes up the coinonia of the dead and the living in Jesus.

Death is alienated in modern society. The process leading to death ,after death and death were also alienated and commercialized away from people's lives. Humans who are so free from death have lost their standard of living and are wandering. Humans who have lost these absolute values are suffering from mental distress and anxiety. Understanding and establishing death is an important part of mental problems

and an important task in preventing suicide.

Key words: Death, Christianity, Suicide Provention, after Death, Bible